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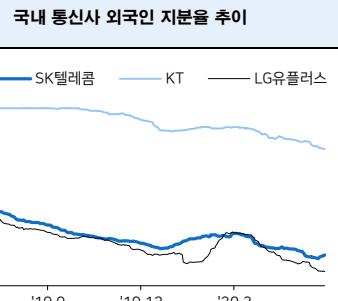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0.6.8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7.5	12.1	6.9	4.8	15.5	15.5	0.9	0.9	2.1	2.1	
통신업종	3.1	6.1	1.2	-5.9	11.4	11.4	0.7	0.7	4.2	4.2	
SK텔레콤	3.5	8.0	0.4	-6.3	12.4	8.7	0.7	0.7	4.5	4.7	
KT	3.9	7.7	5.6	-5.8	9.4	8.0	0.5	0.4	4.4	4.6	
LG유플러스	1.1	1.5	0.0	-4.0	11.3	9.9	0.8	0.7	3.0	3.3	
AT&T	6.2	13.4	-11.5	-14.2	10.2	9.9	1.3	1.2	6.4	6.3	
Verizon	0.6	3.9	1.5	-5.6	12.2	11.8	3.5	3.1	4.3	4.4	
T-Mobile	1.1	6.1	15.1	30.1	43.0	36.0	2.0	1.9	0.0	0.0	
NTT Docomo	-1.1	-5.1	-2.4	-2.7	16.0	15.7	1.8	1.8	4.1	4.3	
KDDI	2.0	4.3	-0.6	1.2	11.7	11.3	1.7	1.6	3.6	3.8	
Softbank	8.0	16.1	9.1	22.6	N/A	12.3	1.3	1.1	0.8	0.8	
China Mobile	1.0	-7.5	-9.7	-7.8	9.6	9.3	0.9	0.9	6.0	6.2	
China Unicom	2.9	-5.5	-24.6	-32.9	10.4	9.0	0.4	0.4	3.8	4.4	
China Telecom	-4.7	-5.4	-16.4	-18.1	9.0	8.5	0.5	0.5	5.0	5.3	



SKT 36.5% (Flat WoW, -0.4%p MoM)
KT 45.5% (-0.1%p WoW, -0.7%p MoM)
LGU+ 35.1% (-0.2%p WoW, -0.8%p MoM)
KT, LGU+ 외국인 지분율 지속 하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6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4%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로 KT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에 대한 분할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 국내 기관은 SKT, KT 순매수, LGU+ 순매도, 외국인은 SKT 순매수,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COVID-19 영향에도 불구하고 5G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반기 무선ARPU 상승 및 마케팅비용 감소로 통신사 실적 개선세 예상 높은 5G 점유율을 유지 중인 LGU+와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을 발표한 KT 추천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 주간 뉴스

▶ 과기정통부, 현대HCN 분할 심사 본격 돌입

(ZDNet Korea)

- 과기정통부는 현대HCN 물적 분할, 최다액출자자변경 신청을 접수 받고 서류 검토 작업에 착수
- 현대HCN을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으로 나눈 후, 케이블TV를 담당하는 현대HCN의 지분 매각
- 정부의 분할 심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분할기일 11월 1일 이전에 결론날 전망
- ⇒ 동일한 지배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내부 분할인 만큼 심사도 수월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 ⇒ 매각의 전제가 현대HCN의 분할인 만큼, 정부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 매각 절차가 본격화 전망

▶ "영국,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 5G 장비 도입 검토 중"

(Chosun Biz)

-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나 일본 NEC에서 5G 장비 공급받는 방안 논의
- 영국은 지난 1월 화웨이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 핵심장비에 화웨이 제품 쓸 수 없도록 조치
- 2023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 대안으로 여러 공급업체 발굴 계획
- ⇒ 외신은 독일 역시 5G 핵심장비 공급계약을 화웨이에서 스웨덴 애리슨으로 변경한다고 보도
- ⇒ 영국 외에 인도에서도 삼성-화웨이 간 경쟁이 치열. 인도 정부 역시 연내 5G 상용화를 계획 중

▶ LG전자 · KT · LG유플러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연합뉴스)

- LG전자, KT, LGU+ 3사가 인공지능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사업기회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현재 3사 외에 현대중공업지주, 카이스트, 한양대, ETRI 등이 참여하여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 중
- KT '기기자리'와 LG전자 'LG 씽큐'의 음성인식 연동 등 사업 성과 창출 및 공동연구와 협력 추진
- ⇒ 앞선 SKT-삼성전자-카카오 3사 간 AI연합에 이어 제조업과 통신업을 어우르는 AI 연합 구성
- ⇒ 통신사의 IoT 사업 및 B2B 사업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현재 비중 낮으나 장기적 성장 동력

▶ 지상파, 재송신료 최대 25% 인상 '초읽기'

(아이뉴스24)

-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이 현실화 중. 합의 단계인 KT를 비롯해 SKB와 LGU+도 협상 막바지 단계
- 가입자 기준 송신료 산정 대신, 송신료 총액 기준으로 인상폭 결정. 2021년까지 25% 인상 가능
- 직전 계약은 2018년 이미 만료된 상태로, 이번 인상안이 합의되면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
- ⇒ 업계에서 거론된 기준 500만 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 지상파3사 수입 1,000억원 증가
- ⇒ 업계 관행상 IPTV 계약은 후속으로 이어지는 케이블TV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 높음

▶ 과기정통, 3차추경 8300억 편성…디지털 뉴딜에 투입

(ZDNet Korea)

-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에 올해 8,324억원을 투입
- 데이터 · 네트워크 · AI 등 생태계 강화에 6,671억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1,407억원
- 핵심은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5G 공공망 구축'. 정부 업무망 5G 전환 및 MEC 시범사업 진행
- ⇒ 경기부양을 위한 5G 투자가 강조되면서 기존 투자 계획 대비 5G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 비대면 서비스 및 클라우드 환경 조성은 통신사들의 B2B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SK텔레콤, '45조 규모' 차세대 영상 의료장비 시장 진출

(아시아경제)

- SKT는 나스닥 상장 준비 중인 의료장비 기술 기업 '나노엑스'의 2대 주주 등극(282억원 투자)
-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나노엑스는 디지털 엑스레이 등 차세대 의료장비 기술 경쟁력을 보유 중
- SK하이닉스, ADT캡스, 인비아초헬스케어 등 계열사와 함께 차세대 의료/보안 서비스도 구상 중
- ⇒ 나노엑스로부터 디지털 엑스레이 포함 차세대 영상촬영 기기의 한국 · 베트남 독점 사업권 확보
- ⇒ SK텔레콤은 무선 사업 외에 헬스케어, 보안, 미디어 등 비통신사업의 비중을 빠르게 확대

4 주요 지표

(심의달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23,500	15.0	15.2	15.9	1.0	1.2	1.1	1.7	4.5	4.6	5.1	4.9	6.0	8.6
	KT	25,300	5.5	20.1	20.7	1.0	1.1	0.6	0.7	4.1	4.3	2.7	2.6	5.1	5.8
	LG유플러스	13,300	4.8	11.2	11.7	0.7	0.7	0.4	0.5	2.6	2.8	3.7	3.5	7.2	7.8
미국	AT&T	32.8	233.5	170.7	173.8	34.9	36.0	23.1	23.3	56.3	57.6	7.2	7.0	12.1	11.8
	Verizon	57.7	238.9	127.0	131.8	29.3	31.1	19.1	20.2	46.5	47.9	7.5	7.3	29.9	28.1
	T-Mobile	101	125.0	65.1	72.8	6.8	7.7	2.4	2.9	19.7	21.8	7.8	7.0	7.0	5.6
일본	NTT Docomo	2,918.0	85.8	43.4	42.5	8.0	7.9	5.5	5.5	13.6	13.3	6.4	6.5	11.2	11.4
	KDDI	3,199	67.2	48.6	48.6	9.7	9.6	5.9	6.0	15.7	16.1	5.3	5.1	14.9	14.4
	Softbank	5,220	99.4	57.1	63.9	-12.6	7.9	-7.1	7.0	5.6	17.9	39.3	12.3	-11.3	7.9
중국	China Mobile	54.7	144.4	106.4	111.2	15.9	16.3	15.0	15.7	41.0	42.4	2.3	2.3	9.5	9.5
	China Unicom	4.6	18.2	41.6	43.3	1.9	2.2	1.7	2.0	13.4	13.9	1.6	1.5	3.9	4.4
	China Telecom	2.5	25.6	54.4	56.4	4.1	4.3	2.9	3.1	16.7	17.1	2.4	2.3	5.7	5.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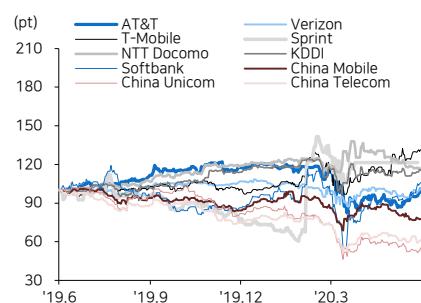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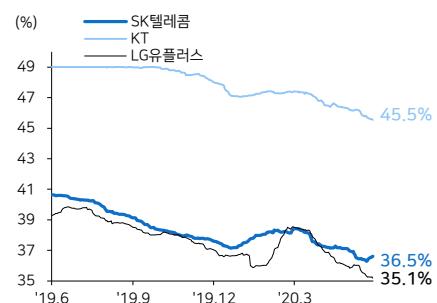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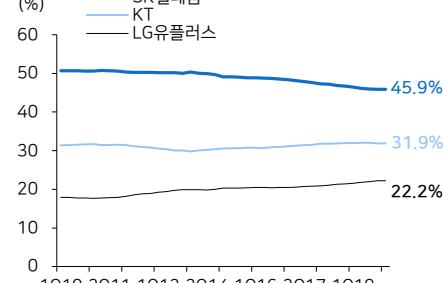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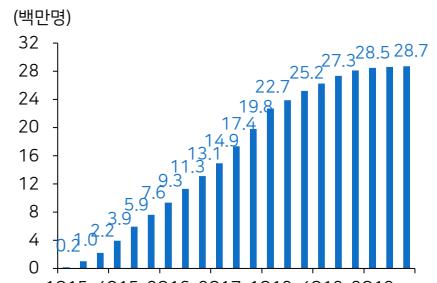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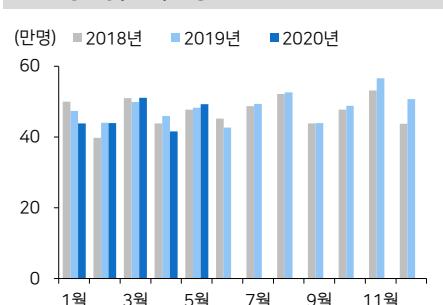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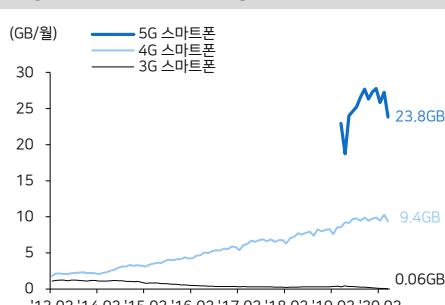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본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